

# ‘수문 개방’ 영산강 생태계 복원 조짐

영산강 송촌보·죽산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 생태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연합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영산강 일대에서 하천 건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송촌보·죽산보가 개방된 지난해 11월13일 이후 강 생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연합은 정제돼 있던 강의 흐름(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을 비롯해 지석강·영산천·봉황천·민봉천·문평천·서창천·황룡강 일원(강 본류와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사라진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철새와 동물의 서식·막이 활동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보 개방 전후 영산강에서 관찰된 철새·오리 등 조류의 종류·개체수가 늘었다.

2016년 12월 영산강 상류(송촌보 상류~담양호 하류)에서 관찰된 종수는 35종, 개체수는 3106개체였다.

보 개방 이후인 2017년 12월에는 43종, 8628개체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산강 중류(몽탄대교~송촌보)에서 관찰된 조류 개체수도 1489개에서 2884개로 늘었다.

최근에는 무리를 지은 노랑부리저어새와 흰목물떼새(별종위기아생동물 2급 조류), 오리·중대백로·왜가리·원앙·논병아리 등이 영산강 모래톱 등지에서 자주 목격됐다.

4대강 사업이 이후 사라졌던 일부 철새들이 수문을 연 뒤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영산강 극락교 주변에서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이달 15일에는 죽산보 위쪽인 나주천 일대에서 수달 무리가 발견됐다.

기존에는 어도(어류가 쉽게 이동하도록 보 주위에 설치한 구조물)에 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수문 개방에 따라 물이 흐르게 됐고, 계류성 어류들을 막아 삼는 수달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분석했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11월29일 조사 보고서에서 “영산강과 합류되는 지점(황룡강·평동천·광주천)의 흐름이 다소 빨라져 강물 속 모래·자갈 등이 굴러 자연 정화되는 과정에 있고, 고라니와 멸종위기 2급 생물인 ‘삼’의 발자국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 물흐름 눈으로 관찰... 곳곳 모래톱 철새 등 조류 종류·개체수도 급증 “보 철거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명했다. 또 “하천 고유의 생태적 건강성과 수질 등의 평가에서 제한된 요인은 있지만 하천의 건강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당시 강 본류 바닥을 굴착하면서 물 나치가 발생해 영산강 일부 구간에서 침전물이 다수 발견됐고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말조개·갈조개·왕우렁이 등 폐사체가 많은 실정이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보 개방 이후 강 상·하류를 구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며 “모래톱, 수달, 철새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다만, 물 흐름의 연속·지속성이 확보돼야 생태계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수문을 열더라도 현재 보 구조물이 존치돼 있다. 당초 하한수위인 2.5m까지 낮출 계획이었지만, 지하수 변화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달 30일 1.5m 기량 수위를 회복시켰다.”

했다.

영산강유역청 관계자는 “철새와 야생동물의 이동은 기온과 강의 결빙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보 개방 시기가 얼마 안 됐고 대조근(포본)이 없어 생물 다양성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없지만 수위 저하에 따른 간접적인 자연생태계 회복 조짐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13일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개방, 하한수위 1.5m(기존 3.5m)를 유지하고 있다.

송촌보는 수문 4개 중 1개를 열어 기존 7.5m 수위에서 4.5m까지 내렸다가 6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하한수위인 2.5m까지 낮출 계획이었지만, 지하수 변화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달 30일 1.5m 기량 수위를 회복시켰다.

서은홍 기자



개항한 인천공항T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구장에는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다.

## 담뱃불 부주의로 삼남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간 연장

담뱃불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구속된 A(23·여)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어린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끈 이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귀가 직후 안방에 걸옷과 가방을 두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끈 뒤 작은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로부터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행동·심리분석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사건 현장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 여종업원 80명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수십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수천 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붙잡힌 유혹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유혹주점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 한 지역 유혹주점에서 고용된 여종업원 80여 명과 손님들 사이 30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두 개의 업소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와 유혹주점 종사자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숙박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 무안 남악에 멧돼지 잇따라 출현 ‘불안’

무안군 남악 인근 마을과 주택가 등에서 1주일 사이 멧돼지 두 마리가 포획되는 등 출현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8일 무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3분께 삼항읍 용포리 외곽도로에서 멧돼지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멧돼지는 현장에서 죽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약 120kg에 달하는 어미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 포획단을 피해 도주하다가 도로로 내려와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혀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과 멧돼지가 충돌하는 것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보고 신고했다”면서 “멧돼지 사체는 포획단에서 수거해 갔다”고 말했다. 앞서 1주일 전에도 오룡산 인근에서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단에 의해 잡혔다.

또 16일 오후 9시55분께에도 B아파트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기동 포획단이 출동했으나 포획하는데는 실패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룡산 일대에 멧돼지가 서식하면서 묘를 파헤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등산객과 주민들이 보고 신고해 오고 있다”면서 “인근 마을과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종교문제로 20대 딸 숨지게 한 부모 입건

화순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딸을 붙잡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6)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40분께 화순군 한 숙박업소에서 종교 문제로 승강기를 벌이던 딸 B(25)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치료 도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9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수년 간 특정 종교를 믿던 B씨에게 “그만 다녀라”고 설득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 “딸이 종교에 너무 빠져 있었다. 설득 과정에 고함을 지르며 집기류를 발로 찼다.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 것을 우려해 다리를 잡고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 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박순철 기자

## 술 취해 훔친 차량 몰다 경찰관 친 3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다 잇따라 사고를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로 조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한 대형마트 인근에 정차된 A(55)씨의 에쿠스 차량을 훔쳐 몰고 간 혐의다.

조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운전면허취소수치)인 상태로 A씨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관 1명과 순찰차 3대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최근 자신과 다른 아내가 집을 나가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